

1990년대 이후 에스닉 룩의 폐쇄형과 개방형의 시지각적 연구

서 봉 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용인송담대학 스타일리스트과 전임강사

A Visual-perceptive Study on Closed and Open Forms of Ethnic Looks since the 1990s

Bong-Ha Seo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eoul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Dept. of Stylist, Young-In Songdam College
(2004. 4. 12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regarding closed and open forms, which have relatively high recognition among visual perception phenomena in costumes. 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ed closeness and openness of ethnic look, which is a representative open costume.

Closed form can be summarized as simple and clear silhouette, conspicuous differentiation from the background, simple construction of the costume and colors with low brightness and clearness. It is modern, functional, rational and modest. On the other hand, open form can be summarized as complicated and inconspicuous edge line, complicated inner shape and colors with high brightness, high clearness and vividness. It includes concepts of pleasure, entertainment, joy, eroticism, rebel and resistance.

Modern costumes have been simplified for a long time and they have functional and closed characteristics in their shape, structure and form. On the other hand, modern open form costumes are usually found in sub-cultural styles such as punk, hippie, kitsch and vintage, and some ethnic looks.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characteristics of open form shown in the ethnic look.

1. The shape, structure of costumes, hair accessories, lace, ruffle and ornaments are complicated and irregular.
2. The silhouette is inconspicuous because of ambiguity between backgrounds and ABC (Apparel-Body-Construct) or the use of see-through materials.
3. It makes complicated visual shapes because it does not have a single type but is composed of various clothing items together.
4. It gives complex feelings by matching various colors or more than two different fabrics.
5. It looks like the open type because of the complex patterns shown in the costumes.

Key words : closed form(폐쇄형), open form(개방형), ethnic look(에스닉 룩 복식), visual perception(시지각)

I. 서론

하나의 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복식의 시대적 배경, 문화, 복식의 양식, 패션 트렌드, 착용자의 환경, 복식의 시각적 조형성, 의미 등 많은 것들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복식은 미술작품, 건축 등의 조형물과 같이 하나의 시각적 조형물로 우리에게 보이므로, 그 복식은 시지각¹⁾의 대상으로 조형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며, 그 특징은 복식을 이해하는 하나의 연구방법이 된다. 또한 그러한 복식의 특징은 비언어적인 시각 전달매체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복식의 관찰자는 그것을 통하여 복식의 미적 가치를 평가하게 되며, 복식 착용자의 신분과 역할, 나아가 생각과 사상까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복식의 특성을 시지각적으로 연구, 고찰하는 것은 복식을 이해하고 그 미적 가치를 탐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조형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시지각적 특징 중에서 비교적 지각력이 뚜렷한 현상 중 하나인 “폐쇄형”과 “개방형”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각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에스닉 풍 복식에 나타난 폐쇄성과 개방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에스닉 풍 복식은 대표적인 개방형 복식 중 하나이며, 개방형을 띠게 되는 조형적 요소가 다양하여 폐쇄형과 개방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폐쇄형과 개방형에 대한 선행연구²⁾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폐쇄형과 개방형의 조형적 특징을 시각적으로 새롭게 정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에스닉 풍 복식에 대하여 연구한 뒤, 현대패션의 경향과 연관지어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쇄형’과 ‘개방형’의 조형적 특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일반 조형예술에 표현된 폐쇄형과 개방형의 본질적인 시각적 특징을 정리해 봄으로써 복식에 나타난 폐쇄형과 개방형을 연구하는 본 연구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 조형예술에 나타난 폐쇄형과 개방형의 특징을 토대로, 복식에 있어서의 폐쇄형과 개방형의 특징

을 고찰하여 보았다.

셋째, 에스닉 룩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고찰한 뒤, 조형적 특징의 하위 범주로 1990년대 이후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에스닉 룩을 폐쇄형과 개방형 복식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지각적 접근을 통하여 에스닉 풍 복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단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복잡한 현대 패션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비롯한-현상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폐쇄형과 개방형에 대한 고찰

1. 폐쇄형과 개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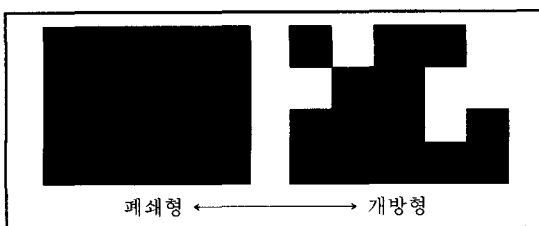
‘폐쇄(close)’는 닫히거나 막혀서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 성질, 출입을 못하도록 입구를 막다, 닫혀있는, 막혀있는, 외부와 교류가 끊기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개방(open)’은 문을 열어 놓다, 열린, 펼쳐진, 자유롭게 되어 있거나 터놓은 것, 울타리가 없는 등의 의미를 갖는다.³⁾ 따라서 개방형과 폐쇄형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조형예술에 있어서의 ‘폐쇄형’은 모더니즘의 특성인 균형, 질서, 형식, 확정, 총체, 편집적, 형이상학 등의 단어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시각적 특성을 보이며, ‘개방형’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인 불균형, 무질서, 반형식, 불확정, 해체, 정신분열증, 아이러니⁴⁾ 등의 단어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시각적 특성을 보인다. 또한 폐쇄형과 개방형은 미술사학자인 H. Wölfflin의 조형예술 양식에 대한 다섯가지 개념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폐쇄형은 ‘선적(linear)’, ‘평면적(plane)’, ‘닫힌(closed)’, ‘절대적 명료성(absolute clarity)’과 관계되어 있고, 개방형은 ‘회화적(painterly)’, ‘심원(recession)’, ‘열린(open)’, ‘상대적 명료성(relative clarity)’과 관계되어 있다.^{5) 6)}

2. 폐쇄형과 개방형의 조형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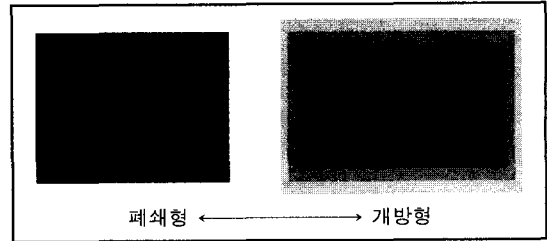
폐쇄형과 개방형의 조형적 요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이 되는 조형물의 윤곽(실루엣). 둘째, 조형물과 배경의 유사성의 정도. 셋째, 대상이 되는 물체 내부의 시각적 요소들. 넷째, 대상이 되는 물체를 구성하는 색채. 다섯째, 대상이 되는 물체의 질감.

1) 윤곽(실루엣)

형과 바탕이 동시에 공유하는 선을 윤곽 즉 실루엣이라 한다. 폐쇄형과 개방형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조형요인은 대상의 윤곽이다. M. R. DeLong은 “폐쇄형 형태에서 ABC⁷⁾의 실루엣은 분명한 가장자리로 인해 주변 공간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⁸⁾ ‘폐쇄성’은 시각적 연속성과 관계가 있는데, 보는 사람에게 마치 닫힌 것처럼 보이거나 닫힌 상태를 말하며, 완전하게 폐쇄된 형은 개방된 형태보다 쉽고 빠르게 인식된다.⁹⁾ <그림 1>과 <그림 2>의 폐쇄형과 같이 실루엣이 단조롭고, 규칙적이고, 명료하며, 둘러막힌 공간으로 되어 있을수록 폐쇄형에 가깝다. 그러나 <그림 1>의 개방형과 같이 실루엣이 복잡하고, 불연속적이고, 불규칙하며, 단일 공간으로 막혀있지 않거나 <그림 2>의 개방형과 같이 물체의 윤곽이 명료하지 않고 불분명할수록 개방형에 가깝게 된다. 윤곽의 명료한 정도는 미술사학자 H. Wölfflin의 “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의 구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대상의 윤곽이 선명한 것을 “선적(linear)”, 대상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을 “회화적(painterly)”이라 하고, 전자를 이탈리아 혹은 바로크적, 후자를 독일 혹은 르네상스적 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적 표현양식이 그 양식의 배경이 되는 시대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¹⁰⁾



<그림 1> 물체의 윤곽에 의한 폐쇄형과 개방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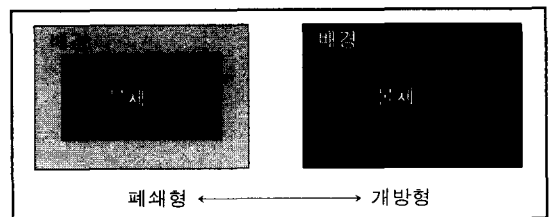
<그림 2> 물체의 윤곽에 의한 폐쇄형과 개방형(2)

2)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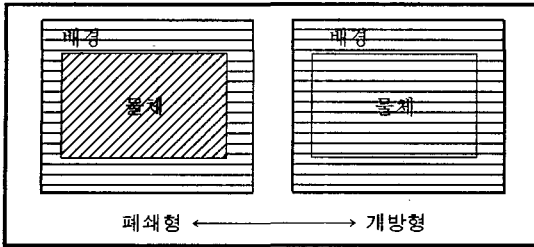
동일한 윤곽을 가진 조형물의 경우에도 각각의 배경에 따라 폐쇄형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개방형으로 보일 수도 있다. 지각 심리학자들은 바탕과 구별되는 물체의 인식은 대비에 의존한다고 밝히며, 명암, 색, 질감 등의 대비가 바탕과 형으로 지각되는 것들을 구분해 준다고 하였다.¹¹⁾

<그림 3>의 폐쇄형과 같이 명도의 차이에 의하여 물체가 배경과 뚜렷이 구분될 때에는 폐쇄형에 가깝게 되고, 개방형과 같이 물체와 배경의 명도가 유사할수록 개방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그림 3>에서 설명하고 있는 물체와 배경의 ‘명도’ 차이에 국한되지 않고, 물체와 배경의 ‘색상’ 차이 정도에 따라, 또는 ‘채도’ 차이 정도에 의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이때 명도, 색상, 채도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시각적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명도이다. 즉, 배경과 물체의 큰 명도 차이는 물체를 강한 폐쇄형으로 만든다.

한편 <그림 4>와 같이 물체와 배경의 ‘무늬’ 차이에 따라, 또는 물체와 배경의 ‘질감’ 등의 차이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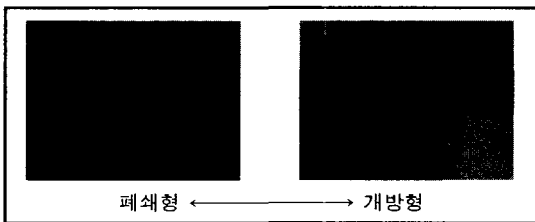
<그림 3> 물체와 배경의 명도 차이에 의한 폐쇄형과 개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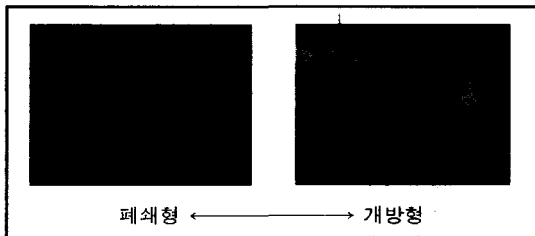
<그림 4> 물체와 배경의 무늬 차이에 의한 폐쇄형과 개방형

3) 물체 내부의 여러 시각적 요소들

두개의 물체가 같은 윤곽을 가지고 있으며, 배경과의 차이에 있어서도 유사함을 보일 경우에도 그 물체의 내부에 있는 여러 시각적 형태들, 즉 그 물체를 이루는 구성요소, 색상, 무늬, 부착물 등에 따라서 개방형 또는 폐쇄형으로 인지될 수 있다. 지각 심리학자들은 형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형의 속성들을 말하면서 여러 요소들과 함께 '내부적 세부사항(internal detail)'을 말하였다.¹²⁾



<그림 5> 물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의 복잡함 정도에 의한 폐쇄형과 개방형



<그림 6> 물체에 있는 무늬나 부착물 등에 의한 폐쇄형과 개방형

이러한 요인에 의한 개방성과 폐쇄성은 윤곽이나 배경에 의한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나, <그림 5>과 같이 물체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단조로우수록 폐쇄형으로 보이고, 복잡할수록 개방

형으로 보인다. 또한 유사한 원리로 물체를 이루는 색상이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개방형으로 보이며, <그림 6>과 같이 장식물이나 무늬 등의 요소가 물체의 표면상에 많이 보여 질수록 개방형으로 보인다.

4) 색채

대상이 되는 조형물의 색채에 따라서 그 물체가 폐쇄형으로 지각될 수도 있고 개방형으로 지각될 수도 있다. 그것은 각각의 색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색상, 명도, 채도 등에 따라 대상이 되는 물체나 그 물체의 일부분이 진출·후퇴, 과장·생략, 확대·축소, 입체적·평면적, 단순·산만 등의 느낌으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색채는 주변의 색채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관찰자의 심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표 1> 물체의 색상에 따른 폐쇄형과 개방형

저명도	저채도	저색상	저명도	저채도	저색상
고명도	고채도	고색상	고명도	고채도	고색상
저명도	고채도	고색상	고명도	저채도	저색상
고명도	저채도	저색상	저명도	고채도	고색상
고명도	고채도	고색상	저명도	고채도	고색상
저명도	저채도	저색상	고명도	저채도	저색상

색채와 폐쇄형·개방형의 일반적인 관계를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어두운 저명도의 색이나 저채도의 색은 명암효과가 적어 평면적으로 보이며 실루엣을 강조하여 폐쇄형으로 인지되기 쉽다. 반면 고명도나 고채도의 색은 물체를 진출, 과장, 확대, 입체적, 산만하게 보이기 쉬우므로 개방형으로 보여 질 가능성이 저명도나 저채도의 경우보다 크다. 고채도의 물체가 저채도의 물체보다 개방형을 띄는 것과 같은 원리로 같은 명도일 경우 무채색보다 원색이 개방형으로 보이기 쉽다. 색의 명도가 높고, 채도가 높은 것은 자극의 강도가 높다는 것이며, 파스텔톤과 같이 색의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들은 비교적 개방형을 띄는 강렬한 원색들보다도 더욱 개방형을 띤다.¹³⁾ 푸른색 계통과 같이 차가운 색은 짧은 파장의 스펙트럼으로 붉은색과 같은 따뜻한 색의 긴 파장을

가진 스펙트럼보다 관찰자에게서 멀어 보인다. 이러한 색상의 특성에 의하여 따뜻한 색이 더 개방성을 띤다.¹⁴⁾

5) 질감

질감은 만지거나 봄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표면의 특성이다. 표면의 특징은 사물이나 사물의 구조적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명암, 색상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형물의 질감이 그 조형물을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같은 검정색의 물체가 있을 경우에 광택소재의 물체보다 광택이 없는 물체가 평면적이고 실루엣을 강조하여 폐쇄형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광택이 심한 소재나 비닐과 같은 소재, 또는 얇아서 뒤가 비치는 소재가 조형물에 포함되었을 경우 조형물의 윤곽이 모호해지고, 내부적으로도 산만한 느낌을 주어 개방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 알아본 개방형과 폐쇄형을 띠는 조형적 요인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폐쇄형과 개방형을 띠는 조형적 요인

	폐쇄형을 띠는 조형적 요인	개방형을 띠는 요인
윤곽 (실루엣)	단조로운 윤곽선	⇔ 복잡한 윤곽선
	명료한 윤곽선	⇔ 불명료한 윤곽선
배경과 물체의 차이	큰 명도의 차이	⇔ 적은 명도의 차이
	큰 색상의 차이	⇔ 적은 색상의 차이
	큰 채도의 차이	⇔ 적은 채도의 차이
	큰 무늬의 차이	⇔ 적은 무늬의 차이
내부의 시각 요소들	큰 질감의 차이	⇔ 적은 질감의 차이
	단조로운 구성	⇔ 복잡한 구성
물체의 색채	단조로운 색상	⇔ 복잡한 색상
	적은 장식이나 무늬	⇔ 많은 장식이나 무늬
	저명도	⇔ 고명도
물체의 질감	저채도	⇔ 고채도
	차가운 색	⇔ 따뜻한 색
물체의 질감	광택 없는 표면	⇔ 광택 있는 표면
	비치지 않는 소재	⇔ 비치는 소재

3. 현대복식에 나타난 폐쇄형과 개방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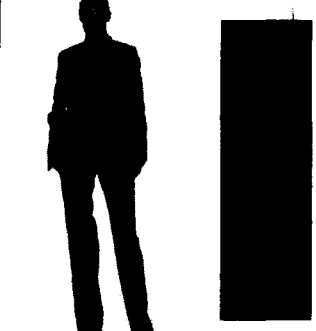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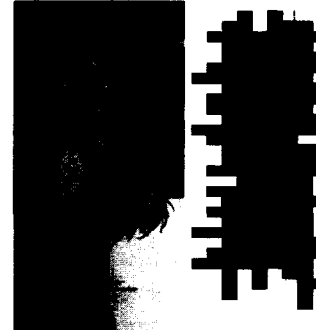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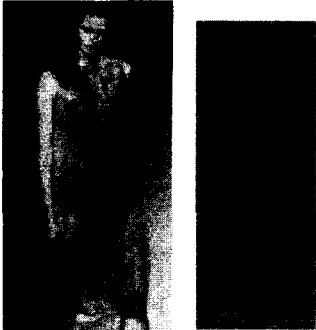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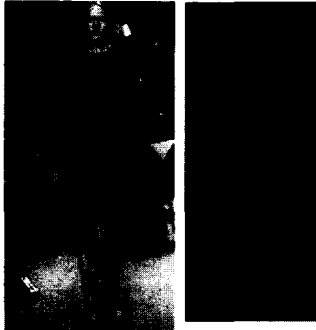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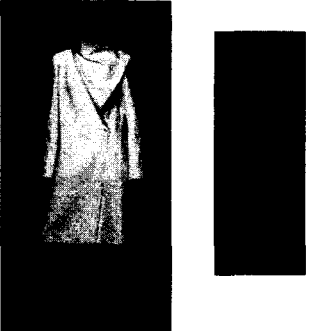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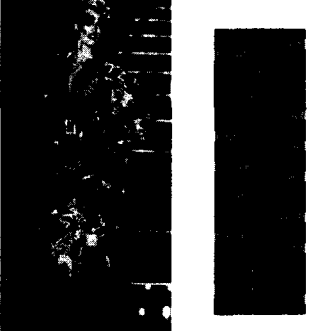
1) 폐쇄형의 복식

남자의 복식은 18세기 중, 후반 이후로 현재에 이

르기까지 폐쇄형의 복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여자복식의 경우에도 장식성이 강하였던 19세기의 복식과 달리 1900년대 이후의 복식은 폐쇄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래 급격히 발달한 자본주의와 아르데코 양식, 세계대전 등의 영향으로 의복이 직선적·유선형적 실루엣을 보이고, 실용적 기능복이 나타나며, 남자에 가까운 보이쉬 스타일 등이 유행하였기 때문이다.¹⁵⁾

폐쇄된 형태는 경계선으로 작용하는 실루엣을 가진 자기 수용형을 말한다. 폐쇄형 형태에서 ABC의 실루엣은 분명한 가장자리로 인해 주변 공간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¹⁶⁾ 따라서 폐쇄형 복식은 앞의 '폐쇄형과 개방형의 조형요인'에서 고찰해 본 것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고 명료한 윤곽선, 시각적으로 단순한 형태와 구조, 자극적이지 않은 색채와 표면 질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배경과 분리된 고립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시지각적 특징을 갖는 폐쇄형의 복식은 모더니즘적, 기능주의적, 이성적이며 절제된 느낌으로 도회적인 세련미와 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의상 작품이나, 맞춤복 전시회인 오뜨꾸뛰르(haute couture)의 복식들, 패션 컬렉션에서 디자이너 또는 의류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선보이는-아방가르드, 키치, 히피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특이한 디자인의 의상 작품들, 극(劇)의 공연을 위한 무대의상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의상 작품들 등의 특수한 경우의 상당수가 개방형을 띤다. 반면 기성복 전시회인 프레타포르테(pret-a-porter)에서 볼 수 있는 상당수의 의상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일상적으로 많이 착용하는 테일러드 수트, 코트, 윈피스, 셔츠, 팬츠 등의 상당수가 폐쇄형에 속한다. 유행주기의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패드(fad)나 트렌디한 하이패션(high-fashion)보다, 매스패션(mass-fashion)으로써 대중에 의해 폭넓게 장기간 채택되어지고 있는 클래식(classic)한 유행경향의 아이템이나,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분류되는 의류들이 일반적으로 더 폐쇄형으로 인지된다.

	ABC 2002년 봄여름가을겨울 패션	ABC 1998년 가을겨울 패션	ABC와 비정규직의 면도 사이에 있는 개방형과 폐쇄형
폐쇄형	 <p><Hugo Boss, 2002 S/S></p>	 <p><Jil Sander, 1998 F/W></p>	 <p><Calvin Klein, 1997 F/W></p>
개방형	 <p><Roberto Cavalli, 2003 F/W></p>	 <p><Trussardi, 2003 F/W></p>	 <p><Calvin Klein, 1997 F/W></p>
폐쇄형	 <p><Cividini, 2003 F/W></p>	 <p><Giorgio Armani, 1996 F/W></p>	 <p><Max Mara, 2003 F/W></p>
개방형	 <p><홍미화, 2003 F/W></p>	 <p><Paul Smith, 2000 F/W></p>	 <p><John Galiano, 2003 F/W></p>

<그림 7> 현대 복식에 나타난 폐쇄형과 개방형 복식의 유형별 비교

2) 개방형 복식

개방형 형태는 ABC와 주변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개방형 형태는 자기 수용적이지 않으며, 형태와 주변은 상호 의존적이다. 개방형 실루엣은 실제로 그 경계선이 구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¹⁷⁾ 개방형 복식의 시각적 특징은 앞서 폐쇄형과 개방형의 조형요인에서 고찰해 본 것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실루엣, 불분명한 가장자리, 불규칙한 형태, 환각적이고 산만한 시각적 특성, 장식적인 형태, 다양함의 혼재, 부정확한 무정형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역사복식에서는 드레이프성이 강하며 인체를 완전히 감싸지 않은 그리스의 복식이나, 불규칙하고 과도한 장식을 많이 사용한 바로크복식, 그리고 화려한 색채와 얇은 소재, 다양한 장식을 하였으며, 섬세하고 우아하며 향락적인 로코코 복식 등을 대표적인 개방형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역사복식에는 자유로운 정신사상, 개방적 성향의 세속미, 비구축적인 해체미 등이 내포 되어있다.¹⁸⁾

현대에는 하위문화 복식의 형태나 다양한 패션 트렌드, 그리고 신체의 일부를 노출시킨 복식에서 개방형을 발견할 수 있다. 하위문화 복식의 예를 들면, 펑크, 히피, 키치, 뉴로맨틱, 클럽스타일, 빈티지 등인데,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복과 장식은 멤버쉽의 가시적 상징으로, 외모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며, 높은 가시성과 불연속적이고 해체적인 성향을 띤다.¹⁹⁾ 에스닉, 액조틱, 트로피칼 등의 유행경향을 띠는 복식의 경우에는 각국의 민속의상이나 이국적인 취향, 열대풍 의상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다양한 문양과, 복잡한 의복구조, 원색적이거나 대비가 뚜렷한 색채, 인체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개방형의 특질을 강하게 나타낸다.

우리가 주로 착용하는 현대의 서양복식 대부분이 기능주의적이고 이성적이며, 단조로운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등 폐쇄형 복식이 주종을 이루는 것에 반하여, 현대의 개방형 복식은 쾌락과 유희, 환희와 에로티시즘, 반항과 저항 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복식의 합리적인 기능성과 계층이나 장르 등의 경계를 해체시킨 해체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의 복식이 형식과 의미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데

만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미적가치를 표현하고 창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III. 에스닉 풍 복식에 나타난 폐쇄형과 개방형

본 연구에서 이미 고찰해 본 것과 같이 일상적으로 착용되는 현대의 복식은 폐쇄형이 그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단조로운 폐쇄형의 복식에 비하여 개방형 복식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므로 좀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개방형 패션 트렌드 중 하나이면서 다양한 시각적 형태로 표출되는 -각 민족복식의 영향을 받아- 에스닉 풍 복식의 폐쇄성·개방성에 대하여 유형별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자료는 firstview.com, Mode et Mode, Collezioni, Gap, Collection 등의 잡지에 나온 1990년 이후의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중에서 에스닉 풍 복식을 수집하였다.

1. 에스닉 풍 복식에 대한 일반적 고찰

에스닉(Ethnic)이란 ‘민족의’, ‘종족의’ 또는 ‘민족 특유의’라는 의미의 형용사 이다. ‘에스닉 풍 복식’의 개념이 복식사전에는 “에스닉 룩이란 민족복 스타일로서 유럽 민족이외의 세계 여러 나라 민족 고유의 복장을 힌트로 한 것이다. 20세기 초 뽀뽀와레의 작품에서 동양 취미가 강한 이런 종류의 룩을 볼 수 있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에는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서 여러가지 에스닉 룩이 발표 되었다”²⁰⁾고 되어있다. 즉 특정 민족의 토속적인 이미지, 장식품, 문양, 직물, 색상, 의복의 구조 나 실루엣 등의 특징을 차용하여, 전체 또는 일부에 활용한 복식을 에스닉 풍 복식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위의 에스닉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에스닉 풍 복식은 유럽이나 미국을 제외한 민족풍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패션을 서구 중심적 사고로 바라보기 때문이며, 동양 풍, 중동 풍, 아프리카 풍, 남미 풍, 열대 풍 등

의 복식 이외에도 복머의 인디언 풍이나 동구권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의 민족풍 복식도 넓은 의미의 에스닉 풍 복식에 포함된다.

세계 각지의 문화권마다 각자의 민속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적 경향이 강한 현대적 감각의 서구 패션은 점차 단순화되어져 왔으며, 그러한 서구의 패션은 패션의 민주화와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에스닉 룩이 현대패션의 주제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에스닉 룩이 과거의 민속의상을 현대패션에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재창조 작업을 통해 현대적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²¹⁾

2. 에스닉 풍 복식에 나타난 폐쇄형과 개방형

에스닉 복식은 각각의 민속복식과, 균형의 미를 연출하였던 그리스 복식의 전통을 바탕으로 발달한 현대의 서양복식이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다. Ackerman의 결정요인에 따르면 양식을 이루는 요인, 즉 양식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통 혹은 인습(conventions), 물질적인 대상(a material object), 그리고 기술 혹은 과정(technique or process)이라 하였다.²²⁾ 특히 민속복식은 장식, 문양, 색채 등을 이용하여 전통에 따른 관례, 상징, 구별, 의미전달, 주술적 표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소재를 자연환경에서 구한 경우가 많고, 봉제기술이나 합성섬유가 발달되기 이전에 오랜 기간동안 형성되어서 뚜렷한 개방형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이러한 민속복식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에스닉 복식 역시 강한 개방형을 띠게 되는 것이다.

1) 복잡한 실루엣에 의한 개방형

자료의 수집 결과 대부분의 에스닉 풍 복식이 개방형으로 보여 졌는데, 그것들을 각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개방형을 띠는 에스닉 풍 복식의 대부분은 개방형을 보이게 되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며,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개방형을 강하게 띠는 특징이 있다.

복잡한 실루엣에 의하여 개방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은 <그림 1>의 '물체의 윤곽에 의한 폐쇄형

과 개방형'과 같은 시지각적 원리에 의한 분류이다. 기형적이거나 복잡한 의복구조나, 머리장식, 레이스, 러플, 술장식, 장신구, 악세서리 등에 의하여 ABC의 실루엣이 불규칙해지며, 의복 자체의 구조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윤곽선을 가지기도 한다. 주로 주술적인 의미나 동족의식의 표현 등의 이유로 복식에 장식을 많이 사용했던 아프리카 풍이나 복머의 인디언 풍 복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8>



<그림 8-1> John Galliano, 2003 F/W <그림 8-2> 홍미화, 2003 F/W <그림 8-3> John Galliano, 2003 F/W

<그림 8> 복잡한 실루엣에 의하여 개방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

2) 불분명한 실루엣에 의한 개방형

불분명한 실루엣에 의하여 개방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은 <그림 2>의 '물체의 윤곽에 의한 폐쇄형과 개방형'과 같은 시지각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불분명한 실루엣은 얇고 뒤가 비치는 소재를 사용한 복식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모피, 레이스나 기타 복식의 장식적 요소 등에 의하여 윤곽선이 불분명한 복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그림 9-1, 9-2>. 또한 물체와 배경과의 차이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폐쇄형과 개방형에 대하여 설명한 <그림 3, 4>에서와 같이 물체와 배경이 명도, 색상, 무늬, 질감 등에서 유사할 경우에도 복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폐쇄형·개방형과는 별개로 개방형의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그림 9-3>.

불분명한 실루엣을 보이는 개방형 복식은 ABC와 주변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며, 실루엣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불분명한 실루엣에 의하여 개



<그림 9-1> Paco Rabanne, 1994 S/S <그림 9-2> Dolce & Gabbana, 1994 S/S <그림 9-3> Jean Paul Gaul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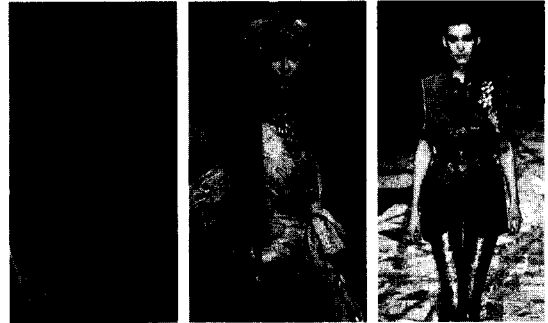
<그림 9> 불분명한 실루엣에 의하여 개방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

방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은 기후나 풍토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얇은 소재를 많이 사용한 아랍 풍의 복식이나 일부 동남아 풍 복식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3) 다양한 구성요소에 의한 개방형

다양한 구성요소에 의하여 개방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은 ABC의 실루엣과는 별개로 ABC를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들이 다양하여 개방형으로 인지되는 경우이다. '물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의 복잡함 정도에 의한 폐쇄형과 개방형'을 설명한 <그림 5>에서와 같은 시지각적 원리에 의하여, 복식이 단일형으로 되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복식 아이템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어서 ABC가 복잡한 개방형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림 10>의 복식들과 같이 다양한 민속복식 스타일의 에스닉 룩에서 이러한 스타일의 복식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에스닉 풍 복식의 경우 다양한 장신구를 포함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유형의 개방형 복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에스닉 풍 복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민속풍의 장신구는 스카프, 숄, 모자, 목걸이, 팔찌, 구슬장식, 술장식, 매듭장식, 깃털장식, 헤어밴드 등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민속복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에스닉 룩은 이러한 유형의 개방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의 흥배를 장식으로 사용한 홍미화의 의상<그림 10-3>에서와 같이 에스닉 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그림 10-1> 이영희, 2003 F/W <그림 10-2> L. Feraud, 1994 S/S <그림 10-3> 홍미화, 2003 F/W

<그림 10> 다양한 구성요소에 의하여 개방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

차용하여 혼성모방의 양식을 보이는 경우에도 복잡한 구성요소들로 인하여 개방형의 형태를 보인다.

4) 다양한 색채나 소재의 매치로 인한 개방형

다양한 색채나 소재의 매치로 인해 개방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은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구성요소에 의하여 개방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과 유사한 시지각적 특성을 보인다. <그림 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시지각적 원리에 의하여, 단일형의 복식이라 하더라도 그 복식이 다양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은 ABC의 경우보다 더 개방형에 가깝게 보인다<그림 11-1, 11-3>. 한편 <그림 11-2>와 <그



<그림 11-1> Dries Van Noten, 1996 F/W <그림 11-2> 홍미화, 2003 F/W <그림 11-3> Dries Van Noten, 1997 F/W

<그림 11> 다양한 색채나 소재의 매치로 인하여 개방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

림 11-3>의 경우는 2가지 이상의 뚜렷하게 이질적인 소재가 하나의 복식에 나타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개방형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ABC는 전체형이나 단일형으로 인지되지 않고 부분형으로 인지되며, 시지각적으로 산만하고, ABC의 일부 가장자리가 주변과 불분명하게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방형을 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들은 아시아 풍, 열대 풍, 아프리카 풍, 인디언 풍, 남미 풍 등 다양한 에스닉 풍 복식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민속복식에서 보다 민속복식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 에스닉 풍 복식에서 이질적인 색채나 소재의 매치가 더욱 많이 나타난다.

5) 복잡한 문양에 의한 개방형

복잡한 문양에 의하여 개방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은 <그림 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시지각적 특성에 따라, 복식에 나타난 문양이 많을수록, 문양이 두드러질수록, 문양이 복잡할수록 개방형으로 보여 지게 된다. 문양은 다양한 색상으로 ABC의 표면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양한 색상은 ABC를 불명료하게 만든다.

각국의 에스닉 풍 복식에 나타나는 문양은 매우 다양한데, 북미의 인디언 풍, 남미 풍, 아프리카 풍에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문양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에스닉 풍 복식에서 자연문양, 꽃을 비롯한 동·식물

문양, 스트라이프 문양, 추상문양, 각 민속 특유의 기하학적인 문양, 페이즐리 문양 등 다양한 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 특정 민속복의 형태와 함께 그 문양을 차용하여 현대복식에 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현대적 복식의 형태에 특정 민속풍의 문양만을 차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그림 12>

6) 폐쇄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

지금까지 고찰해 본 것과 같이 많은 수의 에스닉 풍 복식이 그 윤곽이나, 내부적 구조, 색채, 소재, 문양 등에 의하여 시지각적으로 개방형을 띤다. 일부 에스닉 풍 복식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폐쇄형을 띄는데 그 비율이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일상으로 착용하는 복식의 대다수가 폐쇄형인 것에 비하면, 이것은 에스닉 풍 복식의 큰 특징이다.

앞에서 이미 폐쇄형 복식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폐쇄형을 띄는 에스닉 풍 복식은 실루엣이 뚜렷하고 비교적 단조로우며, 복식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단조롭고, 색상, 소재 등이 단일하거나 유사하다. 또한 <그림 13>과 같이 저명도 저채도의 경우가 비교적 많으며, 몸 전체를 감싼 형태가 많다. 기후가 높은 아열대 지방이나, 장식을 많이 사용한 민속풍 복식의 경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관습·종교·기후 등의 이유로 인체의 노출이 억제되고, 과도한 장식을 거의 하지 않았던 민속복에서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복식형태를 차용한 오리엔탈 룩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며, 동남아시아 풍, 중동 풍, 유럽 풍의 에스닉



<그림 12-1> 설윤형, 1993 S/S <그림 12-2> Missoni, 2002 F/W <그림 12-3> Yoshiyuki Konishi, 1993 S/S

<그림 12> 복잡한 문양에 의하여 개방형으로 인지되는 에스닉 룩



<그림 13> Dries Van Noten, 1997 F/W
폐쇄형의 에스닉 룩

록에서도 간혹 나타난다.

각 민족마다 미를 표현하는 고유한 양식과 장식 방법이 있어 그것은 오늘날의 패션과 장식에 많은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며, 에스닉 풍 복식이라 불리게 된다. 중동을 포함한 동양이나, 남미, 북미 인디언, 아프리카, 유럽의 전통 복식이 에스닉 풍 복식의 테마가 될 수 있으며 에스닉 풍 복식은 모던 스타일 패션이 유행하고 난 뒤에 향수처럼 복고되곤 했다.²³⁾ 이러한 에스닉 풍 복식은 각 민족의 고유한 장식이나 문양, 독특한 소재를 차용하게 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에스닉 풍 복식이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의 ABC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쇄형 복식과 개방형 복식의 시각적 특성을 에스닉 풍 복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기초 연구로 M. R. DeLong이 그의 저서 'The Way We Look'에서 언급한 '폐쇄형'과 '개방형'의 조형요인을 시지각적으로 접근하여 정리하였으며, 그를 토대로 하여 현대복식에 나타난 폐쇄형과 개방형 복식에 대하여 고찰한 뒤, 개방형이 강하게 나타나는 에스닉 풍 복식의 폐쇄형과 개방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폐쇄형의 특징은 단순하고 명료한 가장자리, 배경과의 뚜렷한 구분, 단순한 내부형태와 의복구조, 저명도, 저채도의 색상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현대적이고 기능적이며 이성적이고 절제된 느낌이다. 반면 개방형은 복잡하고 불분명한 가장자리, 배경과의 모호한 경계선, 복잡한 구성요소, 색상, 문양 등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복잡하게 보여지는 내부형태, 고명도, 고채도 및 화려한 색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한 폐쇄형과 개방형의 조형적 특징에 따라 에스닉 풍 복식에 나타난 개방형과 폐쇄형의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대부분의 에스닉 풍 복식에서 개방형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것들을 조형요인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의 형태나 구조, 머리장식, 레이스, 러플, 장신구 등이 복잡한 실루엣을 형성하여 개방형으

로 보이는 에스닉 풍 복식.

둘째, 얇고 뒤가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였거나, 모피, 레이스 등으로 인하여 불분명한 실루엣을 형성한 경우. 또는 배경과 ABC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실루엣이 불분명한 에스닉 풍 복식.

셋째, 단일형으로 되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복식 아이템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어서 복잡한 시각적 형태를 이루는 에스닉 풍 복식.

넷째, 다양한 색상이나 2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소재들을 매치시켜 복잡한 느낌을 주는 에스닉 풍 복식.

다섯째, 복식에 나타난 복잡한 문양에 의하여 개방형으로 보여 지는 에스닉 풍 복식.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복으로 착용하고 있는 현대의 서구복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단순화 되어져 왔으며, 그 형태나 구조, 조형적 특징 등의 면에서 단조롭고 기능주의적이며 폐쇄형을 띤다. 반면, 현대의 개방형 복식은 핑크, 히피, 키치, 빈티지 등의 하위문화 복식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개방형 복식은 쾌락과 유희, 환희와 에로티시즘, 반항과 저항 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복식의 합리적인 기능성과 계층이나 장르 등의 경계를 해체시킨 해체미를 나타낸다. 폐쇄형과 개방형은 상반되는 개념으로써 시지각적인 조형성으로 표출되나, 현대의 복식에 나타난 폐쇄형과 개방형을 형식과 반형식, 총체와 해체, 목적과 유희, 질서와 무질서, 확정성과 불확정성 등의 단어들로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에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 중 하나인 에스닉 복식은 대표적인 개방형 복식이다. 민속복식은 전통, 물질적 대상, 기술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뚜렷한 개방형을 띤다. 이것은 민속복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에스닉 풍 복식이 뚜렷한 개방형을 띤 이유이다.

대중문화의 확산과 기술문명의 발달은 패션의 민주화를 성취하게 하였고, 우리는 해체와 불확정성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접하고 있다. 복식조형을 보는 다양한 시각과 열린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참고문헌

- 1) 시지각(視知覺, visual perception): 시각(視覺, light sense)이 빛의 감각 및 그에 따르는 공간의 감각을 말하는 반면, 시지각은 시각을 통해 어떤 형태를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형태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조형물을 본다는 것은 '나'라는 '주관'만의 작용도 아니요, '조형물'이라는 '대상'만의 작용도 아니다. 대상의 형태가 가지는 '물리적 구조'와 나의 '정신적 과정'이 상호 작용하여 독특하게 결정되는 만남의 과정이다. (김성훈, 윤재성 (2002). 타이포그래피디자인의 시지각 연구. 디자인과학연구, 5(2), pp.21-28.)
- 2) 고경숙 (1988). 패션에 나타난 폐쇄형디자인과 개방형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소 (2002). 연세 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 4)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1). 복식, 37, p. 113.
- 5) Wölfflin, H. Translated by Hottinger, M. D. (1929). *Principles of art history*. New York: Dover Publication, pp. 13-16.
- 6) 조형예술 양식을 설명하기 위한 Wölfflin의 다섯가지 개념쌍 중 '다원성(multiplicity) vs. 통일성(unity)'은 나머지 네 가지 쌍처럼 '폐쇄형 vs. 개방형'에 순서대로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로 대입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문의 설명에서는 제외하였다. Wölfflin은 다원성을 '독립된 부분들의 조화를 통한 통일성의 달성', 통일성을 '한 주제로 부분들을 집결 시키거나 지배적인 요소에 여타 요소를 종속시킴으로써 통일성을 달성'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형과 개방형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적절하다.
- 7) ABC: 의복과 인체가 형성하는 구조 (Apparel-Body-Construct)
- 8) DeLong, M. R., 금기숙 역 (1997). 복식 조형을 보는 시각. 서울: 이즘, p. 24.
- 9) Wallschlaeger, C., & Basic-Snyder, C. (1998). 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서울: 안그래픽스, p. 373, p. 422.
- 10) Wölfflin, H. (1929). 앞의 책, p. 13.
- 11) Wallschlaeger, C., & Basic-Snyder, C. 앞의 책, p. 356.
- 12) 위의 책, p. 356.
- 13) 지상현 (2002). 시각예술과 디자인의 심리학. 서울: 민음사, p. 256.
- 14) Arnheim, R. (1960). *Art and visual perception-a psychology of the creative eye*.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 300.
- 15)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411.
- 16) DeLong, M. R. (1997). 앞의 책, p. 24.
- 17) 위의 책, pp. 25-26.
- 18) 고경숙 (1988). 앞의 책, p. 91.
- 19) 임은혁 (2002).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4-85.
- 20) 라사라교육개발원 (1992). 복식사전. 서울: 도서출판 라사라, p. 48.
- 21) 정연자 (199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민속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p. 218.의 내용을 재정리.
- 22) 김민자 (2003). 복식미학. 가계본 서적, p. 64.
- 23) 간문자 (1996). 1960년대 저항 패션이 민속풍 패션에 끼친 영향. 복식, 30, p. 153.